

데이비드버튼IMF아태국장"원화대기업아직은버틸만"



현재 원화가치는 한국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과 시장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현재 환율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분석했다.

IMF는 또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상당 기간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은 앞으로도 경제 상황을 보가며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1일 0.25%포인트 금리 인상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비드 버튼 IMF 아태국장은 23일(현지시간) 기자와 만나 "지난 2년 정도 원화가치가 절상됐지만 그에 따라 기업 생산성도 높아졌다"며 "원화가치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수출경쟁력이 환율 때문에 일본에 뺏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버튼 국장은 "엄살을 떨 수준은 아니다"며 "지금 원화환율은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다만 환율이 시차를 두고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한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권고했다.

버튼 국장은 특히 "한국 경제는 고령화 문제 등으로 30년 후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는 IMF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값 상승을 틈타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점을 염려하면서 한국이 예의 주시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쇼크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으며 은행 부문에서 이를 완충시킬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중국 경제와 관련해 버튼 국장은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피력했다.

매우 오랜 기간 고성장을 계속하고, 성장세가 주춤한다고 해도 아주 단기간 냉각기를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축으로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 개혁조치가 진행되면서 이 같은 수출 투자의 성장기조는 완화되겠지만 내수가 대신 받쳐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 붕괴나 침체 시나리오에 대해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7% 이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은 당분간 없으며 아마도 먼 미래 이야기"라며 "그때까지 점진적으로 성장속도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연착륙을 확신했다.

버튼 국장은 "이 같은 중국 경제 성장이 한국에는 더도 없는 기회"라며 "철강 등 일부 산업에서 경쟁에 직면하겠지만 많은 부분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개혁과제를 꾸준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가 말하는 한국 경제 개혁과제는 크게 △금융자본시장 개혁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 세 가지다.

이 점에 있어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세계은행의 대니 랩지거 부총재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고급 인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화와 관련된 의료·연금 분야 개혁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 손현덕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7.02.25

